

한국전쟁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첫 행사로 범어서서 수록재 봉행
틱낫한 스님 초청 등 월별 행사 다채



한반도평화대회 운영위원회는 운영위는 부산지역 첫 행사인 '한반도 평화기원 수록재'를 3월 26일 범어서에서 개최했다. 사진은 3월 21일 한반도평화대회 일정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 장면.

한반도평화대회 운영위원회(보행위원장 추무원장 자승스님, 상임운영위원장 수불스님)는 9월 27일 부산 아시아드운동장에서 '한국전쟁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를 개최한다. 이에 운영위는 부산지역 첫 행사인 '한반도 평화기원 수록재'를 3월 26일 범어서에서 개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상임운영위원장 범어서 주지 수불 스님은 "범어서는 한국전쟁 당시 임시정부의 국립 현충원 역할을 담당했던 한국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역사적인 장소"라며 "정전 60주년을 맞아 정전에서 종전으로 범국민적인 평화와 상생의 염원을 담아 '위로와 경의', '화해와 상생', '미래와 희망'을 다지기 위해 한반도 평화기원 수록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참석했다. 또한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허남시 부산시장의 부산지방보훈청, 해군작전사령관 관계자 등 각계의 주요 인사들과 5,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는 전물장병유족회 대표의 발원문과 세계지도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낭독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수록재란 국가를 위해 희생된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불교의 재래 행사로 범어서에서도 40년 이내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다.

대회 운영위는 이번 행사를 위해 범어서의 대형 행사시만 등장하는 대형 과불과 만장 2,000기, 특별히 제작된 초대형 위패 등이 장엄됐다. 대회운영위는 오는 9월 부산 아시아드 운동장에서 개최될 대규모 한반도평화대회의 성공개회를 위해 3월26일 평화기원 수록재 이후에도 4월 한국전쟁 참전국 대사 리셉션, 한반도 평화 및 남북통일기원 대법회(양산실내체육관), 5월 틱낫한 스님 초청 평화법회(범어서), 6월 청소년·어린이 세계평화 사생대회, 고리경시대회 및 한반도 평화대회 동영상 공모, 6·25전사자 위령법회, 7월 한반도평화세미나, 8월 평화의 빛 거리 조성(서울, 부산) 행사 등을 월별로 진행한다.

대회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문의는 한반도평화대회 공식홈페이지 www.budpeace.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예술 활동 지원하는 불교 될 터”

문화법인체 행복한나눔 창립법회

부산전법도량(회장 원허스님)은 문화법인체 사단법인 행복한나눔 창립법회를 개최하고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한다.

행복한 나눔(이사장 원허스님)은 3월18일 부산 연산동 해원정사에서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사장 원허스님, 부산불교연합회장 수불스님, 조계종부산불교연합회장 수진스님 등 시민불자 300여명이 함께 축하했다.

초대이사장을 맡은 해원정사 주지 원허스님은 “문화적 체험이 어려운 다문화가

정, 북한이탈주민 등 문화적 소외계층에게 문화체험과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창의성이 존중되는 문화 예술 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밝힌 후, “문화적 소통을 통한 참여, 나눔, 봉사 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문화공동체로 자리 매김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계종부산불교연합회장 수진스님은 “이제 부산전법도량이 만든 ‘행복한나눔’이 부산불교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며 “이제 문화예술을 방편으로 차별과 갈등, 분별과 다툼을 해소해야 할 시대”라고 강조했다.

‘행복한 나눔’의 초대이사장은 이사장



불기 2557(2013) 3월 18일(월) 화승그룹 고영립 회장이 통도사 신도회장으로 취임했다.

원허 스님을 비롯해서 상임이사에 목종 스님, 이사에 심산·정산·혜성·만초·지각·하림·정법·일철 스님, 감사는 의정·도영 스님이 각각 맡았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화승그룹 고영립 회장 통도사 신도회장

3월 19일 설법전서 이·취임식

독실한 불자로 알려진 고영립 화승그룹 회장(사진)이 영축총림 통도사 신도회장으로 취임했다. 통도사(주지 원산 스님)는 3월 19일 설법전에서 정전도 전 신도회장의 임명과 더불어 고영립 화승그룹 회장의 신도회장 취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태웅전주지 스님, 경상남도 조진례 정부부지사, 임오경 경남도의회 의장, 박수근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시민불자 1,500여명이 함께했다.

향후 갖던 신도회를 맡게 된 고영립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불사가 곧 수행



이라는 자세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로 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영립 회장은 1976년 화승그룹 공채 1기로 입사, 30여 년 만에 전문경영인으로 그룹 회장까지 오르며 셀러리엔 신화를 만든 인물이다. 무엇보다 IMF 사태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화승그룹을 26개 계열사를 갖춘 글로벌 증권그룹으로 다시 일으켜 세운 폭심과 승부사 기질로 더 유명하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해수관세음보살 점안법회

3월 17일...미타선원서

부산 미타선원이 3월 17일 용두산 해수관세음보살 점안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중앙총회 전의장 지하 스님, 조계종부산불교연합회장 수진 스님 등 시민불자 500여명이 함께 했다.

주지 하림 스님은 “월만하게 불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산미타선원은 시내중심가인 광복동에 위치한 도심사찰로 행복선수행학교를 통해 참선의 대중화를 펼치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 수행전법도량이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사찰은 절대금연구역

요즘 담뱃값 인상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담뱃값을 올리면 담배를 덜 피우게 될 것이라는 측과 담배를 덜 피우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담뱃값을 올리는 것은 소비자를 불모로 잡는 좋지 않은 짓이라는 측의 의견이 팽팽하다.

담배가 해로운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각종 암이나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게 만드는 좋지 않은 작용을 한다는 것쯤은 각종 매스컴이나 일소문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따르면 담배로 인해서 6.5초 간격으로 사람이 사망한다고 한다.

어린 시절 담배피우는 아버지의 모습이 멋있어 보여 아버지 담배를 몰래 꺼내려다

들켜서 호되게 야단맞았던 기억은 얼핏 낭만적인 추억거리로 떠오르기는 하지만 그때는 담배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때였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담배피우는 사람들의 천국이라고 얘기했던 때가 있었다. 남생각하지 않고 마음껏 담배를 피워낼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좁은 비행기나 고속버스 안, 밀폐된 영화관, 심지어는 갓난아기가 태어나는 병원 복도에서도 담배를 피웠으니 말이다.

언제부터가 담배의 해악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담배를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 담배로 인해서 세상을 버린 연예인 이모씨가 담배를 피우면 자기처럼 된다고 하는 간절한 절규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가슴 절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런저런 일로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었으나,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형편이다.

사찰이 청정구역이라는 것은 산수가 수려하고, 맑은 공기가 있어서 아니다. 사부대중이 모여서 수행하고, 정진하는 모습이 티 없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어떠한 오염원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청정환경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삼보를 공경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불자들이나 하는 짓일 것이다.

최근에 여러 사찰에서 불자들이 앉아서 쉬고 명상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들면서 이러한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목격되곤 한다. 휴게공간은 사찰의 정구(淸溝)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사찰경내는 어느 곳이든 부처님의 향기가 머무르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찰이야말로 엄격하게 출입이 규제되어야 할 절대금연구역인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쉼터에서 발견되는 담배꽂이는 흡연의 증거이다. 서울 비사할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군 → 원만당 석운

해동 불교 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신중탱화

사찰 연등 및 전선(범등용)

초심미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신제품 (특허제품)
고추구 12E 3구 인자구 26E 4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 발판사다리
DWKS-108A DWKS-108B
DWKS-3000A DWKS-3000B
A형 B형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범등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의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 인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영어용) 탈들이 방생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백색·노랑·빨강
▶ 방생, 탈들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